

이렇게 들었다

청백리

다섯가지 탐욕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때 한국의 잠룡으로 불렸던 전 성남시장 오성수씨가 재임기간 동안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10월 28일 구속됐다. 대통령으로부터 기관장표창까지 받았던 사람이다. 부산에서는 각급 관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부산시와 일선 구청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경기도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업무상 비리로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무려 4백50명에 이른다고 한다.

관리는 오로지 민(民)을 위해 봉사하는 지리다. 청정해야 힘이 으플 조건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관리의 올바른 자세를 부처님 말씀 통해 들여보자. <편집자 주>

■ 밝은 달은 이치러짐이 없어서 허공을 훑어 가며 청정하여 장애없듯이, 늘 초탈자같이 참회하는 마음을 갖출 것이며, 몸에 있어서나 마음에 있어서나 조금도 산란함이 없이 법도대로 하여 청정해 더러움에 물들지 말라. <월유경>

■ 나라를 위해 벼슬에 있더라도 탐욕하지 않아야 하고, 진언하지 않아야 하며 승진에만 매달려서도 안 될 것이며, 오욕에 빠지거나 청탁을 개입해서는 안되느니라. 그러한 마음으론 벼슬에는 있을지라도 죽음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일이니, 벼슬에 있으면서 그러한 다섯 가지 마음에 매달리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라. <불만니화경>

■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한 오리의 털과 한 개의 겨자알이라도 모두가 중한 과보가 있느니라 차라리 손을 끊을지언정 자기 재물이 아닌 것은 취하지 말고 항상 청렴한 마음을 갖고서 선근을 키워야 하나니라. 네가 세상 사람들을 시켜서 삼마지를 닦게 하려면 더욱더 흠뻑하려는 마음을 굳게 해야할지니 이것이 여래선불세존께서 세번재로 결정하신 청정하고 분명한 가르침이니라. <능엄경>

■ 훌륭한 재물에 탐욕심을 내고 그 탐욕 때문에 더욱 미혹하여 미친 듯 날뛰면서 스스로를 알지 못하니 이 뜻은 마치 사냥꾼이 살생의 업이 쌓이는 줄을 마냥 모르는 것과

같구나. <잡아함경>

■ 작은 악을 대단치 않게 알아 재앙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방울은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 차츰 큰 그릇도 채우고 만다. <열반경>

■ 신하와 관리들이 법답지 않게 행동하면 백성들도 법답지 않게 행동하며, 백성들이 법답지 않게 행동하면 군인들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 <중일아함경>

■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세계가 청정하며, 마음이 더러운 까닭에 세계가 더러워지게 마련이다. 그러기에 우리 불법에서는 마음으로 주(主)를 삼는 것이니, 온갖 것이 마음에 맡이맡지 않음이 없느니라. <심지관경>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시시오.
·보낼 곳: 우(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전리인: aem ·8101달: 34713

독자의 소리

주지 자리 놓고 싸우는 봉은사 사건에 실망

지난 달 29일 일부 스님들이 봉은사를 접수하려 했다는 소식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쩌서 이런 일이 종교에서 이뤄져야만 할까? 그것이 불교 언어이 아닌 말인가? 정말로 이런 방법 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불자들은 누구나 삼보에 귀의한다고 한다. 그중에 덕 높으신 스님께 귀의한다는 부분도 있다. 모든 스님들은 고귀하신 분들인데, 혼란스럽게 그치었다. 여러 불자들의 귀의처는 아닌 것 같다. 무엇이 스님들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스님들이 이제는 정신차리지 못하고 본래 자리, 수행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다. 이것이 불자로서 바라는 마음이다.

예전엔 수행에 장애가 된다며 서로 지지소임을 사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지 자리 놓고 싸움이나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받들고 공경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김신태(서울 대조동)

조계종 중신회 운영 빨리 정상화 되어야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지난 해 3월 창립하면서 선언문을 통해 '재가불자의 결집체이며 조계종 신도조직의 대표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2년차인 올해 중앙신도회가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들 정도다. 회장의 유고, 회장직 무대행을 둘러싼 내부갈등으로 선언문에서 밝힌 '결집체, 대표체'라는 말은 공허한 구호가 되었다.

DMF로 모든 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국민들은 고통을 덜어주고 희망을 주는 불교를 원하고 있다.

마침 공동지도체제 채택을 도입, 갈등을 수습하고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다시 창립선언문을 상기하며 초발심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이 불교종흥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큰 걸음으로 발전할 것임을 확신하며, 다같이 화합하여 불교종흥의 그날까지 용맹정진할 것이다.' 황선민(서울 한강로2가)

불교-개신교인 합동 웨블대책 세우길

지난 호(196호) 현대불교신문 3면에 실린 '기독교사상, 웨블특집' 기사를 읽었다.

목사와 신학교수 등 개신교 지도자들이 개신교인들의 웨블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나아가 개신교인의 타종교인에 대한 배타적인 원인을 문자에 얽매인 성경해석, 종교상징물의 물이해에 있다며 신학적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늦게나마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개신교 내부의 타종교인에 대한 태도는 천차만별이다. 같은 개신교끼리도 이단논쟁을 벌인다고 한다. 아직도 불상을 우상으로 여기는 곳이 있다. 개신교인 10명중 7명이 타종교를 배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웨블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이유이다. 불교인과 개신교인들 함께 모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김미숙(경기도 시흥)

양양 남대천 연어축제 생명축제 아닌 살생잔치

강원도 양양 남대천은 낙산사 월정사 신홍사 등을 가까이 두고 있는 하천으로, 해마다 연어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지난 1일에도 남대천에서는 큰 그물을 가로쳐놓고 연어잡이가 벌어졌다. 낚시에 걸려 올라온 연어들이 발버둥치며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몸통이질을 해댔다. 주최측에서는 '연어를 통해 되돌아보는 인간의 삶'이라는 주제를 내걸었지만, 현장의 느낌은 주제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생명을 잉태하는 송고한 산란의 현장에서, 고향을 찾아온 고마움에 감사는 커녕 한몸 가득 새 생명을 품은 산란기의 연어들을 잡아 회탕지옥의 잔치를 벌여야 쓰겠는가.

남자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연어의 가련한 모습들이 과연 아이들의 자연교육에 도움이 될까. 남대천 연어축제는 더 이상 죽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김병주(두레생태기행 간사)

김민수교수의 백양사일기(45년11~12월)

조선어는 국어, 국어학

- 1945년 11월18일(일)

방에서 책을 한창 보고 있는데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몹시 시끄러워 내다보았다. 놀러 온 부인들이 무척 많았고, 열방에는 한 청년이 들어와 있는 것이 보였다. 건너다 보이는 건물에서는 장구치며 소리하며 노는 모습이 보였다.

책 읽기가 어려워 밖으로 나가 이리저리 엿보다가 방 앞 뒷마루에 걸터 앉았다. 열방에서 쉬던 청년이 나를 보며 "짐에 공부하러 왔습니까?" 물었다. 며칠 있다가 이곳에서 한글강습회가 있어서 왔다고 했더니 그 청년이 놀라며 "조선말을 강습합니까?"라고 반문을 했다. 일본어만을 국어라고 했던 일제하의 관념을 아직도 갖고 있는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글을 강습합니까라고 힘주어 강조하자,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그 모습을 보며 일제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거워졌다.



◇ 1940년 당시 동국대 전신인 혜화전문학교 본관.

이만홍 스님의 혜화전문 학교 시절 이야기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만홍 스님이 부엌 쪽에서 이쪽으로 다가왔다. 절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많고 물으니, 여태 이런 일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만홍 스님은 이제 전부 일제에서 해방되어 공화국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 웃었다. 아침부터 저렇게 춤추고 놀면 삶도 날 터인데 대단하다고 말하자, 이만홍 스님 왈, "놀면 늘수록 신나지요" 한다. 스님이 수행만 하는 줄 알았는데 놀면 늘수록 신난다고 하는 말이 우스워 스님과 함께 웃고 말았다.

이만홍 스님과 방에 들어온 뒤, 스님께서 혜화전문학교(惠化專門學校·이하 혜전)를 다녔다는 말이 떠올라 혜전에서 수업시간에 사용한 언어가 조선말이었던지를 물었다. 그랬다고 한다. 또 교

과서로 출판된 책이 따로 있었는지도 궁금해 했더니 <조선불교사(朝鮮佛敎史)> <조선역사(朝鮮歷史)> 등이 있어 그것으로 공부하고, 특히 문학에 관한 것이 많아 따로 문과(文科)가 있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문학에 관심이 많아 문과 교수로 누가 있었는가를 물으니, 최남선(崔南善·1890~1957), 이광수(李光洙·1892~1955) 등이 가르쳤다고 했다. 이를 난 문인들이 교수로 있었다는 말에 관심이 갔다.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이 수록된 책을 뒤적거리고 있었던 탓인지 문과에서 <월인천강지곡>을 등사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교수 가운데 일본사람이 없었는지를 물었다. 다카하시(高橋)라는 일본인 교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수

업시간은 어쩔 수 없이 일본어로 공부를 했다고 한다. 이만홍 스님은 그 일본인 교수가 문과를 없애고 불교과에 흥아과(興亞科)를 만들어 제국주의 정책에 교묘히 이용했다며 고조된 역감으로 흥아과에 대해 설명을 했다.

흥아과는 뜻 그대로는 '아시아를 부흥하게 한다'는 좋은 뜻이지만 사실상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을 아시아 각국에 심기 위한 교육을 전담한 학과로, 흥아과를 졸업한 학생들을 만주와 동남아 각국으로 파견했다고 한다. 흥아과는 졸업생을 얼마나 배출했느냐는 물음에 4~5회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시아 전체를 전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동원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또 이만홍 스님은 사람의 직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 주지가 있고, 다음이 재무 등을 관리하는 감사(監事)와 그 다음으로 감무(監務·현재의 총무)가 있다고 한다. <계속>

서원과 화합으로 종단을 정확하자.

인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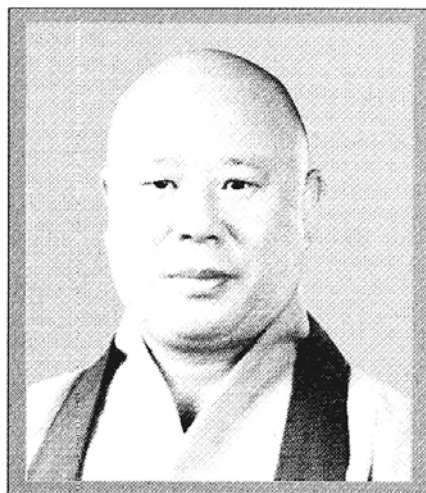
존경하고 아끼는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2천만 불교도 여러분!

자기 버림의 위대한 승리자로 살 것을 서원한 출가 수행자여, 차마 말할 수도 없는 슬막하고 절망적인 종단의 현실, 돈과 술수가 판치는 세속적 가치에 전도된 속물주의 집단, 사회의식 역사의식이 없는 무사안일주의 집단, 정정성, 도덕성, 정통성, 무소유의 삶이 무너져 버리고 자기 기만의 노예가 되고 양심과 믿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며, 정화시켜 나아가야 합니까? 내몸의 썩은 부위는 아픔의 고통이 있어도 수술하여야 합니다. 치유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 참회와 화해로 화합의 장을 열어 종단을 살려야 합니다. 깨지는 아픔이 있어도 종단은 정확되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아끼는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지도자 여러분!

자기정화를 위해 허심과 인욕행으로 정진하여야 할 출가 수행자여, 종단 화합과 교원수호를 위해 한목숨 버려도 아깝지 않는 출가수행자여, 누구를 위한 종단이며, 누가 만든 종단이며, 제도이기에 종단을 보호하고 중도를 위한다고 하면서 속보이는 것들을 하는 그들을 어떻게 달래고 논쟁적 하여야 합니까. 종단의 모든 직위와 자리는 어떤 특정인들의 명예와 권리며, 분중이나 이권에 얽혀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직위와 자리는 오직 종단의 발전과 운영의 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봉사의 자리요, 불사라는 막중한 임무와 사명이 부여된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중정의 교시도 무시하고 스승도 원로도 선배도 원망하고 증오하는 눈, 적대적 감정에 사로잡혀 패를 가르고 편을 짜 종단화합과 기강을 무너뜨리고 원수나 적을 대하듯 하니 어쩌다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단 말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자존심일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어른도 없고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르는 이것이 우리 출가수행자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후보 6번 "승단의 생명은 화합에"



총무원장 자리가 뒤길래 그런 추악한 자리요, 감투라면 버려도 아까울게 없습니다. 집착하고 속보이는 것을 해서 어디에 쓰자는 것인가.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자아발견의 길에 나선 우리가 아닌 것인가. 정의와 정도를 위해 오늘을 살며 내일을 역사해야 할 출가 수행자여, 반목과 대립으로 싸움하는 일 말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양보와 화해로써 파행적 대립은 종식시켜야 합니다. 참회와 화해로 정진하는 것만이 우리가 더는 부끄러워 않게 사는 길입니다.

존경하고 아끼는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지도자 여러분!

불조의 혜명을 계승하는데 등불이 되고 연꽃 되어야 할 출가수행자여 빛이 되고 거울이 되어 살아야 할 출가수행자여 여기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중되어야 할 승단의 생명은 서로 아끼고 위해주고 공경하며 신뢰와 화합하는 일입니다. 정적과 겸손으로 거듭나 심부름 하고자 서원세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의 눈을 떠 화해와 화합의 장을 열읍시다. 내 자신의 행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것을 살피며 정진하는 분들과 함께 축제의 선거잔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가수행정신이 회복되고 양심과 믿음을 찾고 승단의 생명인 화합이 살아 숨쉬게 하며 부처님의 교법정신에 입각한 바른 교단이 되어 이 역사 사회속에 민중의 자각을 일깨워 주는 손과 눈이 되고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뢰와 사랑받는 교단을 만드는데 이 한몸 살라 심부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아끼는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2천만 불교도와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크신 지혜와 지도를 믿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9대 입후보자 6번 이대우 돈수 합장

◎ 서원과 화합으로 종단을 정확히 하자

서원과 화합으로 정진하는 종도회 일동